

#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충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부쩍 바빠지는 7월,  
이번만큼은 꼭 아이들이 성경을 바로 보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하는 니고데모 씨,  
산으로 들로 나가는 만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 Q1. 교수님,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일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솜씨, 권능을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19:1) 봄철 새로 피어난 잎새와 꽃들과 가을의 고운 단풍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듯이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집작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어 핑계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무지가 아닌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은 이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온갖 허망한 생각에 빠지곤 하지요. 성경의 진리는 이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고치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불리는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보아야”(look at) 할 책이 아니라 “통해 보아야”(look through) 할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들여다 보지 말고 양 끝에 줄을 달아 눈에 쓰라고 말하곤 합니다. 안경은 눈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안경에 신경을 쓰면 별 제대로 보기 어렵지요. 안경사가 아니라면 안경만 만지고 있을 이유도 없지요. 성경적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관심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익숙해져서 매사를 말쑥에 비취 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갖춘 것이지요.

성경에 익숙해져야만 기독교적 안목이 생깁니다.

## Q2. '기독교적 안목'이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 기독교 세계관은 삼중 안경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저는 성경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세가지 중심 주제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은 삶과 세상에 대한 조망이기에 흔히 안경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쌍안경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볼록렌즈와 프리즘과 오목렌즈를 가진 쌍안경처럼 창조, 타락, 구속의 세 개의 렌즈를 지닌 특별한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안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도 성경이 영원의 안목을 열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구요. 쌍안경은 세 렌즈의 초점이 맞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창조, 타락, 구속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세계와 삶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진리만 강조되고 타락과 구속이 빠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타락만 강조되면 불교와 같이 세상을 부정하는 관점을 줄 겁니다. 구속만을 강조되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는 물론 회복된 세상이 어떻게 보여주지 못할 것이고요. 초점이 맞추어진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삼중의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보는 세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 Q3. 수련회가 성경학교다 산으로 들로 나갑니다. 그저 나가서 놀기만 하기엔 뭔가 석연찮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 창조에 대한 지식과 찬양

저는 창조에 대해 가르칠 때 저를 대신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못 봤습니다. 타락이나 구속에 대해서라면 열 시간이라도 할 사람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끝입니다. 진화론과 씨름했던 사람은 할 이야기가 조금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진리를 진화론과 싸우는데만 쓰는 것은 옹졸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 성도들은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시편 8, 19, 33, 48, 104편과 같이 창조의 진리를 노래한 찬송이 가득하니까요. 그들은 이 노래들을 예배와 삶 속에서 즐겨 불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은 찬송을 예배에서조차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에 대해 너무도 생각을 않습니다. 자연히 창조의 진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일도 약할 수 밖에요.



옛 시인은 필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뭉 두스르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시 147편) 천지 만물은 늘 한지도 어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겨울이 왔으니 당연히 춥고 눈이 오는 줄로 생각하곤 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창조의 진리를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창조의 진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세요. 창조주의 은총을 노래하게 됩니다.

### 시작과 완성

창조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에 관한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창조가 불안전했거나 부족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는 에덴동산에서 새 에루살렘 성(城)으로 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두 장인 창 1, 2장과 마지막 제 21, 22 장은 놀랄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수년 전 청계천 복원이 마무리 될 무렵 신문에 옛날 사진과 요즘 사진이 나란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울가 초가집 앞에 마차가 지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엔 고층빌딩 사이로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림은 분명히 같은 곳을 찍은 것일 수 있었지요. 뒤로 보이는 산과 앞에 흐르는 개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강들이 계시록에도 있고 금은 보화의 자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에덴은 동산인 반면 새 에루살렘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자연의 모습에서 점차 문화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창조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완성을 향해 나가시는 비전의 첫 장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세계를 꿈꾸십니다.

### 세상 만물이 창조주를 찬양

세상 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손에 붙잡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줄거나 주무시지 않으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님을 깨우치는 설교의 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버려두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시편을 쓴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으시고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경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날 만연한 자연주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비롯되는 오류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과학은 기계적 세계상을 전제로 많은 발명과 발견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점은 속속

밝혀지고 있지요. 세계는 우연히 생긴 거대한 원초적 물질 덩어리가 “빅뱅”(big bang)에 의해 폭발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맹목적 힘”에 의해 방향 없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의미와 이유를 알기 어려운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큰 계획을 따라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직접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모든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는 자세를 줍니다.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무지막지하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오묘하고 조화롭습니다. 예술적이며 섬세하지요.

은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줍니다.

## Q4. '창조를 이렇게 보니 피부에 와 닿습니다! 창조가 아주 오래 전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있는 거네요?

### 말씀에 순종으로 존재하는 세계

성경은 모든 세계가 그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려줍니다(창 1장, 히 11:3). 만물은 있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뜻하신 대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고, 지켜야 할 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뿐 아니라 볼 수 없는 시간과 사시 순환의 원리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나 물건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있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가릴 창조주의 뜻이 기준입니다. 창조의 진리는 또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으셨지요. 이혼의 문제를 옳무로 삼아 시험하려 왔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여 부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입각해서 이혼은 허용될 수 없음을 밝혀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성 도덕,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창조질서가 답입니다. 동성애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창 논쟁중인 배아복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진리가 사안을 바라보는 안경이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요. 이를 상식이나 지배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이 기준이 되면 더욱 위험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태초에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의 말씀이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NP) 등이 있다.